

사무엘하 7.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 (삼하 7 장 1-29 절)

들어가기

지난 시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무사히 들여온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이스라엘을 더욱 더 평안하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의논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대신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1-3 절)

1)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평안함을 더하셨을 때, 장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했습니다. (1 절)

✧ 오늘 우리는 삶의 여유로움과 평안함을 느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찾으며 살고 있나요?

✧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봅시다.

2) 이때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누구와 상의 하였나요? _____ . (2 절)

✧ ‘선지자 나단’ =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

✧ 참고: 역대상 29 장 29 절과 열왕기상 4 장 5 절,

- 역대상 29 장 29 절,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 열왕기상 4 장 5 절,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 곧 선지자 ‘나단’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왕의 종교적 고문 역할을 감당하면서, 저들의 삶에 깊이 관련되어 왕의 사적인 행적들을 기록.

✧ 참고: ‘제사장과 선지자’

-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일과 백성들의 삶을 관리.

-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양심으로 여겨짐, 저들은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특별한 시기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였음.

✧ 아무튼 당시 왕의 신분이었던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중요한 일들을 미리 상의한 것은 칭찬할 일 - (사울과 비교해 생각해 보라..)

■ 3 절 주목: 성전에 관한 ‘다윗’의 생각을 들은 선지자 ‘나단’은 무엇이라고 권면했나?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_____ 하니라’

■ 그럼 이런 ‘나단’의 결정은 옳은 것일까?

☆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생각할 수 있을 듯~

- + : 남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이나 계획에 대해 가능한 격려해 주고 칭찬하는 자세는 배워야 할 것!
- - : 그러나 그의 직책이 선지자이기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권면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2.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이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는 2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4-7 절)

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하기 이전부터 지금껏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으셨다는 것!

☆ 6 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 참고: C.E.V. 6 절 번역..

‘I didn't live in a temple when I brought my people out of Egypt, and I don't live in one now. A tent has always been my home wherever I have gone with them.

☆ 곧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고, 지금껏 집이 없어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으셨다는 것!

2)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 (7 절)

☆ 대신 하나님은 항상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점을 선지자들로 하여금 강조하셨음!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건물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고 인정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소원을 금하시고, 대신 ‘다윗’의 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8-17 절)

1)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 첫 번째 부분: 8-12 절

- ①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8 절), 항상 다윗과 동행하시며 (9 절),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 (9 절)

- ② 모든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9 절), ‘다윗’의 통치아래 평안을 주실 것 (10 절)
- ③ 특별히 사사 시대와 사울의 때와 같지 않게 하실 것 (11 절)
- ④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다윗’이 죽은 후에도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 (12 절)

■ 두 번째 부분: 12-16 절

- ①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소원(성전건축)을 이루어 주실 것 (13 절)
 -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
- ②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실 것을 약속 (14 절)
- ③ 그가 범죄하면 징계하실 것이나, 사울과 같이 버리시지는 아니하실 것을 약속 (14-15 절)
- ④ ‘다윗’의 후손을 통한 왕위가 영원히 보장 될 것 (16 절)
 -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통치를 의미.

4.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해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8-29 절)

1) ‘다윗’은 그의 기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가?

☆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견고해짐을 기억하자!

- ① 18-19 절, ‘주 여호와여~’, ‘주의 종~’
 -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 되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
- ② 20 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고백.
 -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에게 대해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자!
- ③ 21 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놀라운 일, 비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 ④ 22 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이 세상에 주와 같은 분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 ⑤ 23, 24 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분 + 놀랍고 두려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 ⑥ 25 절,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 주의 말씀은 항상 참되심을 고백 (28 절)
- ⑦ 26 절이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2) ‘다윗’의 기도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 3 가지

- ① 18 절의 ‘다윗’의 자기 고백을 주목:
 - 18 절, ‘... ,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달은 성도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아닐까?
 - 오늘의 삶에 감사하는 성도가 미래의 축복도 감사함으로 기대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 참고로 이때 ‘다윗’은 자신의 성전건축을 거절하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적인 축복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기도했음을 주목하자.
 - ☆ 곧 성도는 항상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실현되는 것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

- ② 22-24 절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분명하게 들어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친히 삶에서 체험하여 확신하고 있었음을 발견!
 - 성경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로 만나고 체험하는 성도가 되자!!

- ③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집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기를 바라며 기도했음. (29 절)
 -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요 복된 삶을 깨닫는 성도가 되자.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 나눔.